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민마인드 제고방안



지역생활에 기반을 둔 어촌·어항관광은
 지역주민의 의식의 변화 및 직접적인 참여가 없으면
 관광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할 지라도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 어렵다.
 어촌·어항지역 주민에 의한 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 및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지역의 관광리더를 키워내며,
 지역관광안내원 등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김 향 자 /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실장

필요성

80년대 중반이후 어촌이 지닌 양호한 해양 친수환경과 신선한 수산물을 즐기려는 도시민의 방문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어촌지역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에게 중요한 여가공간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관광행태가 점차 자연 체험형 관광으로 변해 가고 있어 향후 어촌·어항 관광은 매우 각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국민들의 여가 및 관광행태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도시민의 근교로의 단기여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자연에 대한 관심 증대와 자녀에 대한 체험교육의 요구와 맞물려 도시민들의 어촌·어항지역 방문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촌·어항 관광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체계적으로 어촌·어항 관광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난개발과 비효율적인 이용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증가될 자연관광, 체험관광, 농어촌 관광 등에 대비하여 어촌·어항지역의 관광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심

도있는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어촌·어항 지역 관광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들의 전 반적 삶의 질 제고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촌·어항 지역에서의 '관광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주민의 올바른 관광마인드 제고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어촌·어항지역 관광은 일반적인 관광개발과 같이 시설의 존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에 기반을 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관광이 되어야 한다.

어촌·어항관광에 대한 각종 정책이 개발되고 어촌·어항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주민에게는 물론 방문객에게 모두 성공적인 관광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관광마인드 제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주민에 의한 어촌 어항 관광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

어촌 지역에서의 주 기능은 수산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항을 중심으로는 항만 기능이 중심이 되고 있다. 관광의 기능은 이러한 두 가지의 기존 기능에 환경변화와 어촌·어항지역의 산업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가된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어항 지역에서 새롭게 등장한 관광의 기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선결조건을 들 수 있다.

첫째, 관광을 주업으로서가 아니라 보조사업 혹은 생활개선의 일환으로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에서 많이 나는 특산품을 잘 가공해서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변 자원을 연계한 어촌·어항 지역 특유의 관광프

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둘째, 마을 차원에서 어촌·어항관광에 대한 종합개발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물론이거니와 어촌·어항관광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계획수립 없이 지나치게 시설 위주의 개발을 추진하여 관광사업을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계획없이 '관광'이라는 화려한 사업 아이디어에 끌려 무조건 자금을 끌어다가 시설을 개발하는 것은 지역외 자본의 유입을 가져와 수익의 대부분이 지역외로 유출되게 되거나 혹은 파투자로 말미암아 부채에 허덕이게 되어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어촌·어항 관광을 주도적으로 끌고 갈 지역의 인재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내 청년회 조직, 부녀회 조직 등을 통한 지역민의 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져야 지역민의 의견을 한군데로 모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의 어촌·어항 관광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수 있는 군 및 읍·면 단위의 행정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이 중요하다.

우선, 지역주민을 끊임없이

일깨우고 강화시키는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으로 만나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사업운영과 관련된 아이디어,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토론의 장을 지역주민의 관광마인드를 바꾸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서비스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어촌·어항 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의 지속적 자문 및 사업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어촌·어항지역 관광을 둘러싼 여러 주체들, 행정기관, 지역주민, 사업자, 관련단체 등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행정기관은 해당 어촌·어항관광마을이 관련 전문가의 지속적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전문적인 민간지원 조직을 구성하여 재정적인 지원으로 어촌·어항 관광사업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전문가, 행정기관 등의 협력체계(파트너십)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의 어촌·어항관광 마인드 제고 방안

마인드 제고 대상

어촌·어항관광에서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단지 지역이 지닌 부존 자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내발적 지역개발의 차원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리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합적 지역개발의 수단이라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어항관광을 위한 마인드 제고 대상은 어촌·어항지역의 마을 주민이 1차적인 대상이 되며, 나아가 지역의 관광리더와 관광가이드 등이 된다.

어촌·어항 관광이 이루어지는 마을의 주민들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 교육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나 어촌·어항관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보다도 어촌·어항지역의 리더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어촌·어항지역의 관광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광리더를 선발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그 다음 실제적으로 관광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어촌·어항지역의 특성을 관광객에게 직접 소개하고 알려주는 관광가이드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어촌·어항지역에 관광객이 방문하였을 때, 지역에 대한 소개와 어촌·어항의 특성, 자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자로서 자치단체에서 관광가이드를 선발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마인드 제고방안

어촌·어항지역의 관광활성화와 주민참여에 의한 관광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마인드 제고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그림-1〉 참조).

첫째, 어촌·어항지역 마을주민, 관광리더, 관광가이드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 실시를 통한 인재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촌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를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관광개발에 대해 어촌 주민이 정부에 대해 갖고 있는 막연한 기대와 의존심을 극복하고 주민 스스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방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 각 분야 기관이 협조함으로써 효과적인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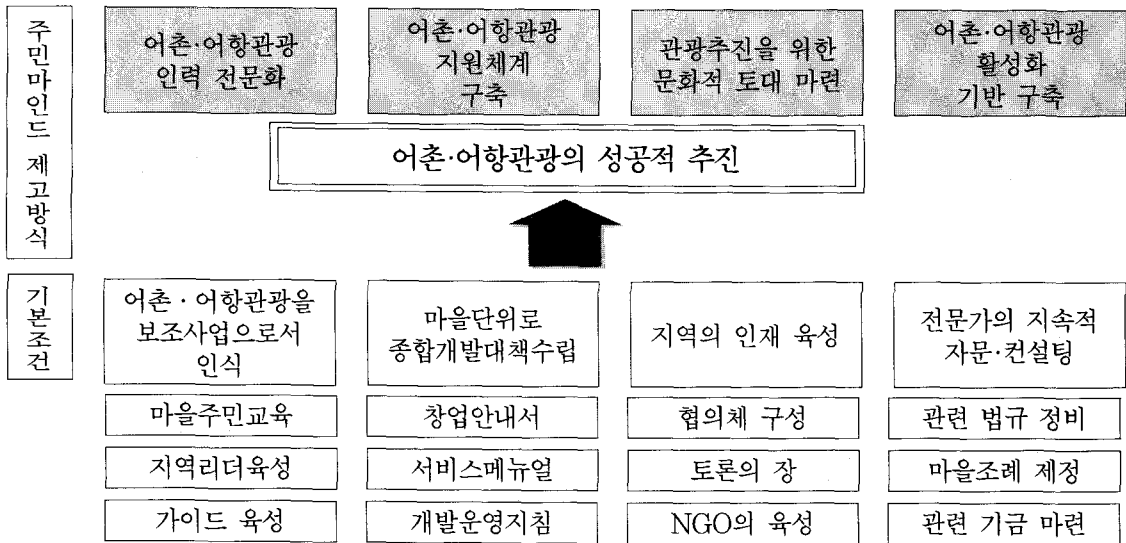
지역주민의 교육을 통하여 지역관광이 성공한 예로서, 일본 후쿠이현(福井縣)의 나타쇼우무라(名田庄村)를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전형적인 산촌지방으로서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제도를 실시하고, 촌민대학(村民大學)을 개설하는 등 주민자립의 정신과 창의력, 적극성, 능력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제3섹터로(株)名田庄商會를 설립하여 지역특산물을 개발한 결과 지역발전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

둘째, 주민들이 어촌·어항관광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게 하기 위한 어촌·어항관광사업 창업안내서, 서비스 매뉴얼 등을 만들어 보급해야 한다.

관광사업은 지금까지 어촌·어항지역 주민이 추진해온 사업과는 성격이 매우 다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관광사업이 지닌 계절성과 서비스업으로 지닌 특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몇 회의 지역주민의 교육으로는 지역주민에게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키거나 서

<그림-1> 어촌·어항관광 활성화의 조건과 주민마인드 제고방안



비스마인드를 제고시키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어촌·어항지역내에서 관광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민이 어떤 자원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떠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또는 어떤 행정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 자금 혹은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어촌·어항관광사업 창업안내서를 개발하여 배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주민이 관광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실제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서를 보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자신만이 알고 있는 독특한 비법의 음식

을 만들어 팔고 싶을 때, 어느 정도의 기본 시설이 있어야 할지, 서비스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에 대하여 알려주는 안내서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대량관광 형태에서는 사업자의 역량부족과 비도덕적인 행태로 인해 관광객의 불만과 환경파괴가 증되고 있다. 따라서 일차적인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광산업계의 공감대 형성과 사업자용의 원칙 및 지침의 마련이 시급하다. 폐수배출, 경관파괴, 서비스질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광지의 개발과 운영관리에 관한 상세한 지침을 마련해야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마을지역민들의 만남

의 장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문화를 만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의식은 보수적이며 폐쇄적이어서 이해조정과 합의 형성에 소극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은 관광개발의 전문가도 아니며 경험도 전혀 없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힘을 모을 수 있는 조직화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내 기업인들의 단체와 민간조직(NGO)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들 NGO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팀 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관광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주민들 스스로 문화를 즐기

고 자긍심을 갖도록 해야 하며, 동시에 문화환경의 보존과 이용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 시민들을 참여시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 전문가 토론회, 워크숍, 포럼, 캠프 등을 활발히 개최하도록 한다(강신겸, 2000). 넷째, 지자체 단위 혹은 마을 단위의 조례를 제정하여 규약에 의한 어촌·어항관광을 추진하도록 한다.

어촌·어항관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법률제정은 물론, 시·도별, 마을단위의 규범,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마을이용제한조례’를 제정하여 심각한 자연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수용인원의 최대치를 한정하거나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경관을 고려한 마을 정비 방향 제시, 마을내 시설개발시 ‘협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다든지의 규정을 통하여 어촌·어항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을 최대한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한다.

마인드 제고 내용

어촌·어항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마인드 제고 내용을 크게 지역환경 부문과 경

제환경부문, 사업추진부문, 서비스 부문으로 나누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지역환경 부문에서는 어촌·어항지역에 대한 사회·경제적·환경적 이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토개발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에 대하여 이해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환경 부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어촌·어항관광 사업과 연계시키기는 어려우나 지속적으로 관광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계 및 국가 경제의 동향 및 관련 산업인 농어촌 산업의 동향 등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사업추진부문에서는 관광산업에 대한 이해는 물론 민박 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은 시설개발에 대한 법·제도적 이해, 경영 및 투자에 대한 이해, 마케팅 및 상품화(상품개발, 가격, 유통, 프로모션 등)에 대한 이해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관광서비스 부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 마인드가 관광 사업의 기본이라고 볼 때, 이는 지속적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맺음말

어촌·어항관광과 같이 생활

과 지역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관광은 주체가 바로 지역주민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은 지금까지 자본이 없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개발사업에서 배제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생활에 기반을 둔 어촌·어항관광은 지역주민의 의식의 변화 및 직접적인 참여가 없으면 관광사업을 통해 많은 이익을 남겼다고 할 지라도 바람직한 모델이 되기 어렵다. 외부의 자본은 결국 이익의 대부분을 지역외로 유출시키고 결국 지역주민에게 남겨지는 것은 피폐된 어촌지역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서 지적하였듯이 지역의 잠재자원을 발굴, 활용하는 소규모의 어촌·어항관광을 통한 지역진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이 바뀌어야 한다.

이처럼 어촌·어항지역 주민에 의한 관광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발 및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 할 지역주민을 교육하고 지역의 관광리더를 키워내며, 지역관광안내원 등을 훈련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